



### 光州日報와 함께 행복한 주말을

#### Weather

광주·전남 휴일 날씨

3(土)	4(日)
 맑음 15/30℃	 흐려져 비 16/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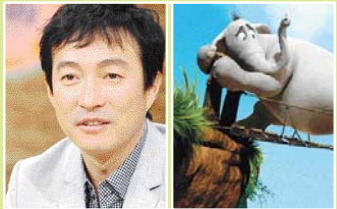
#### News

- 기아차 목포항 수출 재개 ②
- U대회 유치기원 시민축제 ③
- 오늘밤 '지성불패' 뜨나 ⑬

#### Books

- 中 최고 판타지 '산해경' ⑭

#### Entertainment



- 추억의 드라마 안방복귀 ⑧
- 할리우드 영화 5월 대공습 ⑨

#### Wellbeing

- 식품 탐구 - 홍화 ⑬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



“원더풀 광주” 2일 밤 9시 광주시 동구 금남로 옛 전남도청 앞 특설무대에서 열린 ‘U대회 광주유치 기원 시민축제’에서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 실사단이 대학생 자원봉사자들로부터 U대회 유치 의지를 담은 100만인 서명부와 캐리커처를 선물받고 시민들에게 화답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FISU 실사단 “광주 PT 훌륭했다”

〈프레젠테이션〉



### ‘2013 U대회 광주로’

#### 첫날부터 바쁜 일정 소화

#### 재정·선수 수송 문제 관심

2013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개최지 선정을 위한 광주 현지 실사에 나선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 실사단은 2일 오전 광주시로부터 인프라 및 실사일정 보고를 받는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실사에 돌입했다. 실사단은 이날 진행된 프레젠테이션에서 광주의 인프라에 대해 ‘엑셀런트(Excellent)’라고 극찬하면서도 질의·응답시간에는 집요한 질문 공세를 펼치기도 했다.

〈관련기사 2·3면·화보 7면〉 스테판 버그 스웨덴 집행위원을 단장으로 한 6명의 실사단은 이날 오전 11시30분 상무지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김윤석 광주시 경제부시장으로부터 광주의 여건과 인프라에 대한 브리핑을 받고 실사일정을 보고받았다.

#### ■오늘의 실사 일정

- 광주시 환영행사 및 스포츠스타 면담  
오전 9시 광주시청
- 프레젠테이션(스포츠시설·선수수송 등)  
오전 10시 김대중컨벤션센터
- 국무총리 환영오찬  
낮 12시 김대중컨벤션센터
- 기념식수 및 경기시설 현지실사  
오후 1시50분 월드컵경기장 등
- 대학 체육시설·경기 참관  
오후 3시20분 조선대·호남대
- 유치위원회 환영만찬  
오후 6시30분 프리도호텔

인프라에 대한 브리핑은 광주시가지지를 가로 3m, 세로 2m로 축소 제작한 모형도와 컴퓨터 그래픽을 가미한 영상을 활용해 이뤄졌다.

실사단은 이어 박삼구 하계U대회 광주 유치위원회 후원회장이 마련한 오찬에 참석한 뒤 오후 2시30분부터 3시간동안 입국·세관 절차와 재정, 스포츠 조직 및 경험, 여론 등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받고 질의·응답시간을 가졌다. 실사위원들은 이 자리에서 ▲선수단 수송문제 ▲재정확보 방안 ▲선수수송 건립 등 대회 전반에 대해 집요하게 질문했다.

실사 위원들은 선수단 수송문제와 관련, “지난 2003년 대구 U대회의 경우 김포공항

에서 경기장까지 무려 7시간이 소요됐다”며 광주시의 대안을 물었다. 이에 대해 시가 “인천국제공항과 광주공항을 운영하는 전세기 등을 배치할 계획이다”고 답변하자, 실사단은 “보다 구체적이고 좋은 방안을 도출할 것”을 주문했다.

대회 운영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시는 “특별법이 제정돼 대회를 치르

는 데 필요한 정부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이날 프레젠테이션이 광주시의 전반적인 개최 역량을 소개하는 자리라는 점을 의식한 듯 실사위원들은 지적보다는 자신들의 경험을 들려주는데 시간을 할애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 이대통령 “광주 U대회 유치 적극 지원 하겠다”

### 시·도지사 회의서 밝혀... 혁신도시 수정·보완 시사

이명박 대통령은 2일 광주의 최대 현안인 2013년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유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혁신도시 조성 관련, 폐기나 축소 계획은 없지만 일정 부분 보완 및 수정은 불가피하다”면서 “공기업 민영화 및 통폐합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2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 16개 시·도지사 회의에서 박광태 광주시장으로부터 2013년 하계 U대회 유치를 위한



정부의 지원 요청을 받고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방의 최대 현안인 혁신도시에 대해 “각 시·도마다 사정이 다른 만큼 일률적으로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시·도지사가 어떤 방향으로 보완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한번 깊이

고민해봤으면 좋겠다”며 “중앙집권적으로 일률적인 혁신도시를 만드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공기업 통폐합 및 민영화 문제는 계획대로 추진하고 정치 논리에 입각한 접근은 배제하겠다”고 밝힌 혁신도시 조성 계획 수정에 따른 과문이 확산될 전망이다.

한편 박준영 전남도지사는 “지나친 규제로 전남의 세계적 해양관광자원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 대통령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냈다”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 세기보청기, 세계 속에 우뚝서다!

대한민국 대표보청기 - 세기보청기

수세기소라·세기보청기

1588-8488 / 062-222-0100

1021530-9308